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션 19,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경 이야기: 영원 과거, 창조, 타락, 성육신 ,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새 창조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경 이야기: 영원한 과거, 창조, 타락, 성육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경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공관복음서,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다음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탐구했고, 많은 강의에서 이 가르침의 정점인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성경 이야기 전체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볼 때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목을 조금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히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연합과 영원한 과거, 연합과 창조, 연합과 타락, 연합과 성육신, 연합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연합과 새 창조.

연합과 영원한 과거.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의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구원을 위해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3과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이 있을지어다. 그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8, 9, 우리 주에 대한 증거나 그의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목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하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1:8, 9. 앞의 구절에서 바울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성화의 목표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셨다고 가르친다. 후자의 구절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지적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담대하라고 격려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현재의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계획,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에 반하여 주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1:4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게, 이 은혜는 문자 그대로 영원한 시대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9. 바울이 신성한 선택이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두 구절에서, 그가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가르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그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듯이 말입니다(에베소서 1:4).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목적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바울의 흔한 구절에 대한 이 두 가지 특이한 용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는 적어도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아르미니우스 학자들이 내세우는 것으로, 저는 그들을 매우 존경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사람들이 충족해야 하는 구원의 조건을 나타낸다고 이해합니다.

잭 코트렐은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자신이 주권적으로 부과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지 미리 아십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조건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즉, 그리스도와 구원의 연합에 들어갔는지,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모든 혜택을 공유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4의 의미인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르미니우스 파에서도 사용하는 두 번째 접근법은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로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해 인간을 택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미리 아셨던 사람들입니다. 제리 월스와 조셉 댄젤로는 이 접근법을 채택합니다.

예수 자신이 택함받은 자, 예정된 자입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예수에게 통합될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수의 특별한 지위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거 관점은 선거의 단체적 본질, 믿음의 결정적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해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의 포괄적인 신뢰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잭 코트렐의 조건부 선거는 클라크 피녹이 편집한 그레이스 언리미티드라는 책에 실렸습니다. 제리 월스와 조셉 댄젤로는 *왜 내가 칼빈주의자가 아닌가를 썼고*, 전 동료 마이클 윌리엄스와 저는 *왜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아닌가라는 동반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서로 토론하지 않고, 사실 서로를 아주 잘 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을 얻고 싶다면, Walls와 D'Angelo가 쓴 *Why I Am Not a Calvinist*, Peterson과 Williams가 쓴 *Why I Am Not an Arminian*, InterVarsity Press를 읽으면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을 소개하기 전에 처음 두 가지를 비판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바울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썼을 때, 죄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인간의 반응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코트렐과 다른 아르미니우스파 신자들은 조건적 선택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바울의 말과 조화시키려고 사도들의 말에 예견된 믿음을 읽어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접근법은 바울에게 아이디어를 읽어내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신-인간의 구원자로 택하셨지만,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아닙니다. 대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가르칩니다. 4절은 믿음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구절에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에게 통합될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지위에 참여하게 된다”는 생각을 읽었습니다. 그 대신, 그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1:3, 4에서 바울의 말씀에 대한 세 번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고 동의어를 자주 사용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반적인 사용,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하는 것은 시간 이전의 선택의 맥락에서 사용한 것과 어떻게 다르니까? 차이점은 시간적입니다. 바울은 거의 항상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4과 디모데후서 1:9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의 선택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거에 대해 말합니다. 이 두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제 연합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 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세상 창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썼을 때, 그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또한 그들을 구원할 수단도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아들과 모든 영적 혜택과의 영적 연합으로 인도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9, 디모데후서 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인간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부인하고 대신 자신의 목적과 은혜, 즉 그의 주권적 의지와 연민으로 인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우리를 은혜롭게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의 아들과 합치려는 그의 계획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계획으로 인해 틀림없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연합이 하나님의 사후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놀랍게도, 창조 이전에 죄인들을 선택하신 것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에 선택하셨을 때, 그는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구원을 경험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즉, 그는 그의 아들을 성육신으로 보내어 죄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시켜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연합과 창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부터 계획되었으며,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은 믿는 죄인들을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와 효과적으로 함께 이끎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해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합합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으로 즉시 이동하는 것은 이야기에서 필수적인 세 가지 단계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오순절,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는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첫째,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이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데 필요했습니다.

둘째, 영원한 아들의 성육신, 곧 우리와 인성으로 하나가 되신 것은 죽고 부활하고 성령을 베푸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우리 사이에 형제애를 확립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그와 연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호환성을 확립했으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직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의 다음 세 단계가 창조, 성육신,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 신의 형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이 인간을 특별히 창조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비록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중요한 면에서 매우 다르지만, 그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우리는 그와 같습니다. 로버트 레섬은 간결합니다. 인용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양립할 수 있도록 창조된 기초에 있습니다.

인용문 닫기. Letham, *성경, 역사, 신학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 우리가 신과 같이 된 것의 결과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26 , 27.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남자와 여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요소가 관련되어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구조, 역할, 관계에 대한 우리의 역량이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요소입니다. 다시 레뎀을 인용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용문 닫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을 위해, 그분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나 무고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이나 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양립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0:22.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는 바로 그분이시요, 그 거민들은 메뚜기와 같으니라.

이사야 40:22. 그리고 28.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시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7:15. 그는 높고 드높은 자, 영원에 거하는 자, 그의 이름은 거룩하다. 이사야 57:15.

그와 비교하면, 인용하자면, 모든 민족은 그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공허함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이사야 40:17.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이요 다른 이는 없습니다.
이사야 45:5, 6, 18, 그리고 더 많은 구절들. 놀랍게도 위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면에서 그와 같습니다. 필립 휴즈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참된 형상, 기원과 운명을 설명합니다.
인용문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개인적이라는
지식은 실제로 우리 주제에 대한 특별한 순간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다른 생명체에게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창조주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실은 대문자 P인 사람에서
유래한 사람이라는 사실, 사람은 소문자 p인 사람에서 유래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대문자 P인 사람으로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참된 형상.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도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선택되었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그리스도에게 주의를 돌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고린도후서 4:4).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 사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이에
다리를 형성합니다. 형상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간을 형상을 지닌 존재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설명하게 하세요. 창세기는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동일하며, 식별됩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형상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확인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후서 4:4, 골로새서 1:15.

바울의 생각에 따르면,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그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따라서 지식, 의로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신의 형상은 우리를 신 아래에 두고 다른 피조물 위에 두는 동시에, 경건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신과 양립할 수 있게 합니다. 휴즈가 설명하듯이, 그리스도가 신의 참된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초에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만이 자신이 놓여 있는 세상 안에서 아래로, 그리고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창조주에게로 위로 이르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 연결 뒤에 있는 진실은 첫째,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신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신의 형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영원한 아들은 인간이 형성된 형상입니다.

인간을 신격의 두 번째 인격과 묶는 깊고 친밀한 유대감은 따라서 인간 존재 자체에 본질적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호환성은 우리가 영원한 아들의 성육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타락을 고려한 후에 이 주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첫 조상이 죄로 타락한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를 나열하는데, 여기에는 죄책감이 포함되는데, 그 해독제는 칭의이고,

정죄는 그 해독제가 동일합니다. 부패는 점진적 성화이거나, 더 나은 방법으로는 모든 차원의 성화, 초기, 점진적, 최종입니다. 고통, 깨진 관계, 속박,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속박은 그 해독제가 구원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는 그 해독제가 화해이고, 무질서는 그 해독제가 두 번째 아담이 가져온 질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독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타락의 많은 결과를 나열하는데, 여기에는 죄책감과 정죄, 타락, 고통, 깨진 관계, 속박, 신으로부터의 소외, 무질서가 포함됩니다. 창조물 자체도 훼손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7과 18.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타락의 모든 결과를 뒤집습니다. 인류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타락의 결과는 에베소서 2장에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으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손으로 육신으로 행한 할례라 불리는 것으로 불렀던 이방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에 낯선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11-12,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오기 전 이방인 독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끔찍한 처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잃어버린 인간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야 하는 이유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합니다(12절). 틸먼은 바울이 이방인의 다섯 가지 부족함 목록에서 이것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프랭크 틸먼의 *에베소서 주석*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분리입니다. 그 위치가 나타내듯이, 그것은 목록의 맨 위에 있으며, 다른 네 가지 문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두 구절 밖에 있습니다. 1:4에서 13까지의 모든 영적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면, 1:3, 그리고 2:1에서 3에 자세히 설명된 암울한 곤경으로부터의 구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온다면, 2:5에서 6,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와의 분리라는 첫 번째 순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연합은 관계적 진실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공간적 개념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과 영생을 포함한 구원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저기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그 모든 혜택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간격을 메우고 우리를 구주와 연합시킬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그러므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에베소서 2:12). 바울은 우리의 곤경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설명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2:13,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에 대한 해결책은 그와 연합하고, 그의 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고, 그의 영적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그와 같이, 그와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그는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참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반항했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필립 휴즈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성육신과 유용하게 연결합니다.

인용문, 신의 형상 교리는 인간의 참된 본성을 이해하는 데 못지않게 성육신의 사실성에 대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지평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신이 자신이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신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피조물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인간을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과 연결하는 선에서, 이미지, 소문자 I를 이미지, 대문자 I, 즉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있는 신의 형상을 신, 아들, 신의 신성과 인성의 아들인 형상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에서 우리와 하나가 됨으로써,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성육신 후에도 계속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하신 아들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필요한데, 오직 신인만이 우리를 구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필요한데, 오직 신인만이 우리를 구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히브리서가 주장하듯이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의 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 중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인용문, 자녀들이 혈육을 공유하므로 그도 또한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평생 노예가 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14, 15. 아들의 성육신과 그와의 연합. 더욱이, 성육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레담이 설명하듯이, 인용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근거는 성육신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가 먼저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개인적 결합으로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인류와 합쳤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그리고 바울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5-8,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빌립보서 2:5-8). 요한처럼 바울도 성육신을 그리스도의 사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며, 여기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할 때 성육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는 않지만, 연합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Lethem은 간결하게, 인용문, 성육신에서 우리와 함께 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지금과 영원한 미래에 우리와 그와 연합하는 기초입니다, 인용문 닫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다음 단계는 예수의 구원 성취, 오순절에 행한 일을 포함합니다. 성육신과 오순절 사이의 연결은 Lethem에 의해 그려집니다.

인용문,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하나입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의 본성을 개인적 결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육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우리와 연합하셨으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그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신 것부터 아직 하지 않으신 재림까지 모든 것을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의 핵심과 영혼은 죄인 대신 죽으시고 셋째 날에 승리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 자체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일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제가 이전 책에서 썼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 때 구원은 자동적으로 인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구원 행위의 중심 전제 조건으로 구원하는가? 답은 '예' 이다. 오직 신-인간의 구원자만이 구원할 수 있다. 아들이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죄 없는 인간으로 살 수 없었을 것이고,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승천할 수 없었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없었고, 성령을 부어주실 수 없었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없었으며, 다시 오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구원합니다.

그건 제 책, *아들에 의해 성취된 구원*, 그리스도의 사역, 오순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는 그와의 연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만큼이나 구원의 행위입니다. 오순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을 올바르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은 세례자 요한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회개를 위해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하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3:11.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에는 세례자 요한의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11, 마가복음 1:7과 8, 누가복음 3:16, 요한복음 1:32-34.

루가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너희가 나에게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례자 요한의 예언과 연결시킵니다.

오순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만큼 메시아 예수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 일들만큼이나 독특하고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그의 교회를 성령으로 한 번만 세례 주시고, 이 행위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고, 새 창조를 시작하고, 새 공동체에 영을 부여하시는 공개적 사건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중 마지막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치는 영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그리스도와의 신앙적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보내심이며, 레렘이 확언하듯이 그렇습니다. 인용문, 영원한 아들 그리스도는 인간 본성을 자신 안에서 연합하셨으며, 성령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에게로 이끄시므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에게로 이끄시므로 개인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서 본 그 개인적 결합은 완전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영원해지지 않고, 신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 성령은 무수한 인간과 죄인들에게 들어오고, 거하고, 포화시키고, 스며들어 그들을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연합과 영원, 연합과 창조, 타락에서의 연합, 성육신에서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서의 연합, 특히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일, 그리고 이제 연합과

새 창조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구원과 하늘과 땅의 구원입니다.

창조물 자체는 타락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죄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 고통을 받으며 그것을 먹을 것이며, 가시와 엉겅퀴를 네게 낼 것이다. 창세기 3:17, 18.

성경은 또한 우주의 구원,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이사야 65:17~25, 66:22, 23, 마태복음 19:28, 로마서 8:20~22:2, 베드로후서 3:10~13, 요한계시록 21:22. 다시 한 번, 이사야 65:17~25, 이사야 66:22, 23, 마태복음 19:28, 로마서 8:20~22, 베드로후서 3:10~13,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창조의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주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용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자기와 화해시키시기를 기뻐하셨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19과 20.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합니다. 로마서 8:20-22, 창조물은 허무함에 복종했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종시킨 분 때문에였습니다.

창조물 자체가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압니다. 로마서 8:20-22.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대한 성경적 신학의 맥락에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7-10.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을 얻었으니 곧 우리의 허물 사하심이니 이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라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풍성히 베푸사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목적에 따른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일시키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7-10. 바울은 그리스도의 폭력적인 구속적 죽음, 그의 피에 대해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일시키려 하심의 신비를 계시하셨다고 말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확장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여러 번 중 하나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영의 적용은 결국 우주적 효과를 낳습니다.

요한계시록 22:3은 간결합니다. 인용문, 더 이상 저주받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3. 그리고 물론, 연합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 성육신하신 아들이 죽고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영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적용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효과를 미칩니다.

실제로 바울은 개별 신자들이 이미 새 창조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인용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창조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왔느니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고린도후서 5:17, 18.

그리스도와의 신앙적 연합의 축복 중 하나는 신성한 내주입니다. 사실, 내주함은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아들과 연합시키실 때 우리에게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영이며, 사실 삼위일체이시지만, 특히 우리 안에 거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는 우리가 그의 아들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도록 은혜롭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의 의미 중 일부는 그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2:20.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3:1. 당신은 죽었고, 당신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3절. 당신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당신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최종 결과는 인간의 최종 부활과 구속, 그리고 하늘과 땅의 최종 회복입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이 연구의 결론을 읽었습니다.

이것으로 성경 스토리라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우리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계획에는 그들을 영적으로 그의 아들과 합치도록 계획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들을 참된 형상, 곧 그의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타락하면서 그들은 그의 선함에 반항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아들은 성육신으로 인간이 되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와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성육신으로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예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신앙적 연합으로 알려진 이 영의 유대는 개인적이고 단체적이며, 현재적이고 영구적이며, 확정적이고 성장하며, 이미 있고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부활된 백성이 새 땅에서 영원토록 거룩한 삼위일체와 함께 살면서 연합은 완전하고 온전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경 이야기: 영원한 과거, 창조, 타락, 성육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새로운 창조입니다.